

국 외 소 식



뇌영상 촬영으로 치매 예측 가능

알츠하이머병 등 노년기의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뇌의 변화를 영상 촬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윌리엄 재거스트박사 연구팀은 인지 기능의 급속한 저하와 두뇌의 핵심 영역에서의 포도당 대사 저하가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60세에서 100세 까지 중남미 계열 미국인 60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평균 4년간 뇌의 변화를 PET 단층 촬영과 MRI 촬영으로 들여다보면서 치매 등 인지 기능과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들중 치매나 인지 기능 손상이 일어난 6명의 자료를 토대로 포도당 대사의 형태와 알츠하이머병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두뇌 부위등을 연관시켜 분석한 결과 앞으로 알츠하이머의 전조 증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신경학 연보 4월호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 2006년 5월 2일

마스크 시 발생 때 별 도움 안 된다

만약 전 세계에 걸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다면 얼굴 마스크가 많은 보호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미국 의학연구소(IOM)가 4월 27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 정부는 조류 AI에 대비해 마스크를 비축하는 가운데, 마스크가 조류 AI 저지에 도움이 되는지 IOM이 연구해 달라고 요청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마스크가 실제 AI 바이러스를 막는지, 만약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보호를 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허위적인 안전감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감염된 AI 환자들 가까이 가도록 장려하는 셈이 된다는 것.

IOM 패널을 공동 주재한 존스 홉킨스대학의 국제보건 전공 도널드 버크 교수는 “우리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사용한다 해도 충분히 보호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IOM 보고서는 “호흡 보호는 전염 질환을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 5천만개의 마스크를 주문한 보건후생부에서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윌리엄 룩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마스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006년 4월 28일

봄에 태어나면 자살률 17% 높아

봄철이나 초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에 탄생한 사람들보다 자살할 위험이 평균 17%나 더 높은 것으로 영국 대학들이 공동 실시한 연구 결과 밝혀졌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5월 2일 보도했다.

리버풀대학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공동연구팀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행해진 자살 2만 6천 916건을 분석한 결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에 출생한 사람들보다 자살 가능성이 평균 17%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별로 보면, 4~6월 사이 태어난 여성들이 가을에 태어난 여성들보다 거의 30%나 더 많이 자살했고, 같은 기간 태어난 남성들은 가을에 출생한 남성들보다 14% 많이 자살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자살과 계절 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실시한 최대 규모의 것이라고 밝히고 그 결과를 '영국정신병지'에 발표했다.

자살 증가는 우울증, 기분장애, 알코올중독 등의 정신 질환들을 가진 사람들이 4~6월 사이 많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말했다.

과학자들은 그간 출생 계절과 일부 암, 심장병, 뇌종양 등 질환 간의 연계를 확립했으며, 특히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병, 간질, 자꾸 잠이 오는 기면증 환자들은 12월에 가장 많이 태어난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리버풀대학 정신병학자 에머드 살리브는 "아기가 발육하면서 뇌는 기온, 각종 감염 같은 어머니의 상태에 대단히 민감하다"면서 "이것이 뇌세포들이 정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질환들에 취약해 희생자가 되어 자살로 끝을 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2006년 5월 2일

加 여성, 고양이 96마리 키우며 학대

캐나다 캘거리의 한 중년 여성이 집에서 고양이 96마리와 개를 키우면서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해 평생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는 형편에 몰리게 됐다.

캘거리 경찰은 지난주말 신고전화를 받고 한 여성이 사는 집을 조사한 결과 고양이 96마리와 개 한마리가 굶어 탈수증세를 보이거나 영양실조인 것을 발견, 이 여성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고 CBC방송이 4월 19일 보도했다.

경찰이 이 집에 들어갔을 때 고양이 2마리는 이미 죽어있었고 10마리는 안락사시켜야 할 형편이었다는 것.

유죄가 확정되면 이 여성은 앞으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고 2만캐나다달러(약 1천7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연합뉴스 / 2006년 4월 20일

애완동물도 폭력 보호대상 법제화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주로 적용되는 법원의 보호명령에 따라 애완동물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메인주에서 사상 최초로 배우자 중 1명이 보호명령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구제될 때 피해자의 애완동물도 함께 구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

워싱턴DC 소재 동물보호단체 HSUS의 낸시 페리는 “보호명령은 학대받는 대상이 심각한 단계에 있을 듯하기 때문에 새 법은 매우 혁신적이며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폭력성을 사람은 물론 애완동물에까지 표현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는 점은 동물애호단체는 물론 경찰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1년 이혼했다고 밝힌 수전 월시는 “내가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부모를 찾아갔던 동안 전 남편이 내가 키우던 누런 개를 일부러 차로 치어 죽인 적이 있었다”며 “공포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그런 일을 나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법안 발의를 후원한 존 피오티 메인주 하원의원은 유타주 보호시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애완동물까지 학대를 받았다고 밝힌 점을 예로 들며 입법 기관에서의 지지도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존 발다치 메인주 지사는 새로 도입된 법이 애완동물들에 대해서도 폭력적 태도를 취하려는 가해자들에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2006년 4월 11일

캐나다 과학자 알츠하이머병 치료물질 발견

인간의 뇌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손상을 저지할 수 있다고 캐나다 과학자들이 밝혔다.

4월 28일 캐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발견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10%인 29만명이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폴 프레이저 교수가 이끄는 토론토대 퇴행성신경질환연구소(CRND) 연구팀은 ‘네이처’ 최신호에 게재된 보고서를 통해 이 특정 단백질은 치매를 유발하는 신경독소의 생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이 없으면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beta-amyloid peptide)로 불리는 신경독소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 부작용도 없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의 피터 세인트 조지-히슬럽 박사는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은 물론 발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약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약은 동물실험에만 최소한 5년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실용화에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는 온타리오주 알츠하이머협회와 캐나다 건강조사연구소,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 등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연합뉴스 / 2006년 4월 28일